

# 주관적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만족도가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to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魚 銀 珠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Eun Joo Eo*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교수 : 劉 永 珠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Prof. : Young Ju Yoo*

### 목 차

<p>I. 서 론</p> <p>1. 문제제기</p> <p>2. 연구목적</p> <p>II. 이론적 배경</p> <p>1. 결혼생활에 대한 관계몰입</p> <p>2. 비교수준에 의한 관계만족도</p> <p>3.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만족도와 관계몰입</p> <p>III. 연구방법</p> <p>1. 측정도구</p> <p>2. 조사대상 및 자료모집</p>	<p>3. 분석방법</p> <p>IV. 연구결과 및 논의</p> <p>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p> <p>2. 관계몰입의 전반적 경향</p> <p>3. 주관적 변수에 따른 관계몰입</p> <p>4. 객관적 변수에 따른 관계몰입</p> <p>5. 관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p> <p>V. 결론 및 제언</p> <p>참고문헌</p>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eral tendency of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marital satisfaction by comparison level, and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marital commitment.

For these purposes, a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35 items, of which 22 questions are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13 questions for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3 for instrumental commitment, 4 for moral commitment, 6 for affective commitment).

The analytical methods adopt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t-test, oneway-ANOVA, Duncan-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 is high as a whole.
- 2) Marital satisfaction affects on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 significantly. The more marital satisfaction, the more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
- 3) The degree of marital commitment is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age, the number of children, husbands' job, wives' employment, and marriage type.
- 4) The factors which has a especially strong relationships with marital commitment are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job, and the number of children.

## I. 序 論

### 1. 問題提起

사회가 근대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부부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잘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려하지 않고 이혼만을 부부관계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Yankelovich, 1981).

이와같은 결혼 생활의 파탄을 막고, 부부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그들의 관계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Hinde, 1981). 서로의 관계내에 몰입된다는 것은 그 관계 참여자들이 사슬 등에 의해 얽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직면했을 때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Ernest Havemann, 1990). 관계 내에 몰입됨으로서 부부간에는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가 구축되며, 강력한 유대가 형성된다(Stinnett & Walters, 1977).

결혼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결혼생활 관계에 몰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ob & Margaret Blood, 1978). 즉,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부는 일종의 관계 몰입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이로인해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 상태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변해가고, 그 중요성도 점차 상실되어 간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까지..."라는 결혼 서약 문구는 부부의

관계 몰입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문구였으나, 이제는 단지 형식적인 문구로 남게 되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결혼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부가 관계에 몰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며, 그 중요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요인중의 하나는 부부가 그들의 현 관계에서 받는 보상이 기대한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데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비교수준은 현재의 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현재의 만족 정도가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칠 때는 서로가 관계에 몰입되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이제까지 부부의 관계 몰입에 관한 연구는 부부의 애정이나 친밀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 언급한 문헌이 몇편 있을 뿐, 부부의 관계 몰입 형성 과정이나 그 인과적 조건 및 내용,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몰입을 변수로 다룬 연구로 Sabatelli와 Cecill-Pigo(1985), Swensen과 Trahaug(1985), Dean과 Spanier(1974), Stevensen, Stinnett, DeFrain과 Lee(1982)등의 연구가 있어, 부부의 관계몰입의 중요성을 잠시 강조했을 뿐이고, 그후로 현재까지 여타의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부부의 관계몰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듯 활발하지 못한 연구 경향은 사회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관계몰입이라는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연구내용으로 다루기에는 그 의의를 찾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기인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산업화, 근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인성 특성이 자기 중심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면,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아충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몰입 규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부부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가족 구조에서는 결혼 생활의 안정이 주로 두 사람의 감정 조절과 인격적 융합에 의존하며, 한 가족의 영구성도 전적으로 결혼생활이 계속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이효재, 1976) 부부가 그들의 관계에 몰입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안정에, 궁극적으로 가족의 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특히 오늘날은 부부의 결혼생활에도 변화가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 부부의 관계 몰입 규범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부부의 결혼 생활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 研究目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관계몰입의 개념과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부부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비교 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주관적 변수)와 일반적인 사항(객관적 변수)들에 따른 관계몰입의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 그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관계 몰입 정도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2)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관계 몰입 정도는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에 따라 어떠한가?

3)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관계 몰입 정도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자녀수, 수입, 직업, 결혼형태)에 따라 어떠한가?

4) 부부의 관계몰입 정도가 비교 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자녀수, 직업)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어떠한가?

## II. 理論的 背景

### 1. 結婚 生活에 대한 關係 沒入

#### 1) 關係 沒入의 概念 및 現像

외국의 경우, 'Commitment'는 점차 부부관계 내의 규범으로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Yankelovich, 198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commitment'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변수화하여 다룬 연구도 없으며, 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용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전적 의미의 경우(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78), '책임' '공약' '언약' '위탁'... 등의 용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어느 한가지 용어만을 채택하여 부부관계에까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기 위해서는 이들 용어들을 모두 함축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했다.

이에 외국의 제 문헌을 기초로 해서 사전적 의미의 용어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부부관계에 적용해도 그 의미나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본 결과, '관계에의 몰입' 혹은 '관계몰입'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사료되어, '관계몰입'측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그 개념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사람이 어떤 것에 몰입되었다고 할 때, 이는 그것에 밀착하려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련의 결과를 기대하며,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baut, 1983). 마찬가지로, 관계에 몰입된 사람은 몰입 목적을 이룰 때 까지, 그 관계가 최상의 것은 아니라해도 관계를 지속하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관계에의 몰입은 관계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cker(1960)는 관계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관계몰입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활동선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Hinde(1981)는 관계 몰입을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Kanter(1972)는 관계몰입을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의 의지로 표현한다.

기타, 관계의 지속성 이외의 측면에 관계 몰입과의 관련을 부각시킨 연구로 Stinnett과 Walters(1977), Blood(1976), Bob & Margaret Blood(1978), McGinnis와 Finnegan(1976), Duck(1981) 등이 행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관계몰입을 상대방의 행복이나 성장, 복리를 증진시키고, 관계내의 신뢰감이나 안정감 구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관계의 안정은 배우자 간의 관계 몰입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로의 몰입정도를 확산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 받으며, 관계에 몰입되었음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미숙함이나, 상대방의 관계 몰입에 대한 확산의 미약함이 친밀한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tinnett과 Walters(1977)에 의하면 관계몰입이란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의 수용을 나타낸다. 결국, 훌륭한 남편이나 부인으로 몰입되었다고 할 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기대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Rodgers는 관계몰입의 일련의 사회적 기대나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닌,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 위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chulz, 1985, 재인용). 이런 의미에서 관계몰입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자발적인 참여에 높은 가치를 둔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몰입 개념을 관계의 지속성 측면에 맞춰, 부부가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 2) 關係 沒入의 因果的 條件

사람들이 맺는 관계는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인과조건과 관계를 파괴하는 인과 조건으로 구분지어진다(Thibaut, 1983). 이들 인과 조건에 관한 많은 분석 예들이 관계 몰입을 다룬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다(Lewin & Johnson, 1978; Levinger, 1974; Thibaut & Kelley, 1959; Bercheid & Walster, 1978; Rusbult, 1980).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인과 조건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들을 관계에 지속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인과 조건이다. 여기엔 배우자에 대한 애정,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행위나 지위, 관계 이탈시 생기는 댓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복종 등이 있다. 관계를 파괴하는 인과 조건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들을 관계 밖으로 내몰기 위해 작용하는 인과 조건이다. 여기에는 배우자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댓가(근심, 노력), 대안 관계에 대해 느끼는 매력, 대안 관계 시도를 위한 내적, 외적 압력 등이 있다.

## 3) 關係 沒入의 過程 및 內容

관계를 지속시키는 인과 조건이 그에 반하는 인과 조건을 능가하여 개인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관계 몰입 과정이라 하는데, 이들 과정은 관계 발달에 있어서 주요 사건과, 그 과정 내내 지속되는 사건들의 지속적인 결과(outcomes)를 포함한다(Thibaut, 1983). 이 과정은 보상과 댓가 측면에서 제기된다.

Johnson(1978)과 Rusbult(1980)는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관계 몰입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보았고, Hinde(1981) 역시 관계에 몰입해 감에 따른 만족감을 묘사했다. 이처럼 상대방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위를 발달시켜감에 따라, 그 관계는 이미 경험한 행복과의 관련을 통해 부차적 보상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매너나 성향을 파악하게 되어, 새로운 관계내의 사람들 보다도 현재의 예측 가능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Masters와 Johnson(1974)은 관계 몰입이 욕구 충족 정도에 기초한다고 하며, 그 관계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클 경우,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했다. Kanter(1972)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에 도구적, 애정적, 도덕적으로 몰입하게 된다고 한다. 즉, 그 관계 내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보상과 댓가 측면에서; 그 관계내의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애착 측면에서; 그리고, 그 관계 내의 규준이나 신뢰감의 도덕적 강요 측면에서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계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몰입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지적, 도구적 성향을 포함한다. 이익과 댓가를 고려해 볼 때, 그 관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이탈할 때 생기는 댓가가 관계를 지속했을 때의 댓가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순수 심리학적인 의미로, '이익'은 관계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강요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 몰입 유형은 사회 체제 역할로의 몰입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를 도구적 관계 몰입이라 한다.

관계에의 몰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나, 관계 내의 참여자들 서로에 대해 감정적으로 묶어주는 끈과, 관계 내의 모든 참여자들과의 연루에서 비롯된 만족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는 서로 강력한 감정적 유대를 맺으며, 참여자들이 함께 밀착된다. 이를 애정적 관계 몰입이라 한다.

관계 내의 규준을 준수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며, 그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관계 몰입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판단 성향을 포함한다. 관계 내의 요구가 옳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도덕, 정의, 가치표현, 요구사항에의 복종은 필수조건이 되며, 관계를 위한 희생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도덕적 관계몰입이라 한다.

이렇듯 관계에 몰입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이 그 관계에 도구적으로 몰입하였다면, 그는 관계에 투자를 하게 되며, 관계내에서 보상감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그 관계에 애정적으로 몰입하였다면, 그는 강력한 사회적 연계, 연관성, 그리고 소속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만일 그 사람이 그 관계에 도덕적으로 몰입하였다면, 그는 관계내에서의 목표, 방향, 의미, 느낌등을 공유하게 된다. 사람의 정체감도 어느 정도 이들 관계 몰입으로 형성된다.

## 2. 比較水準에 의한 結婚 滿足度

### 1) 比較 수준

Thibaut와 Kelley(1959)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보상(rewards)과 댓가(costs)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보상을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이나 만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의 보상을 그들은 단일 심리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또 댓가를 일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일체의 요인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극복해야 할 제약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가 지불해야 할 댓가는 커지게 된다. 즉, 어떤 행동을 할 때,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크게 필요하거나 긴장과 초조를 많이 느끼게 되거나, 또는 갈등을 크게 느끼게 되면 그 행동으로 지불되는 댓가는 크다는 것이다(전병재, 1978).

이들에 의하면 사람은 관찰에 기초한 제 관계에 관한 지식이나 제관계에서의 경험 축적을 기초로 관계에 임하게 되며, 이런 제 정보가 현재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Sabatelli & Cecil-Pigo, 1985). 2자관계(dyadic relationships)에 있는 사람들도 그 관계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일련의 기준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 기준 중의 하나가 비교수준(comparison level)으로, 이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인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결과들의 평균 가치로 규정된다(Thibaut & Kelley, 1959).

Thibaut와 Kelley는 이 비교 수준 개념에 입각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중앙치를 설정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비교 수준의 상위일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만족스럽게 평가될 것이고, 비교 수준 이하일 때에는 그만큼 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비교 수준의 개념은 Helson의 심리 물리학적인 개념인 적응 수준(adaptation level)을 본뜬 것인데, 이는 결국, 어떤 자극이 특정인에게 경험으로 채택되는 바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적응되었던 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전병재, 1978).

### 2) 比較水準에 의한 結婚 滿足度

교환이론에 의하면,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관

계의 만족도나 관계에의 매력 정도는 그들의 투자 정도에 비례해서, 혹은 그 이상가는 보상의 기능으로서, 비교 수준이상의 결과를 야기한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그 상황은 계속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교환양식을 변화시킨다.

Ryder(1973)에 의하면, 부인들은 아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의 투자가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여 높은 보상 수준을 기대하게 된다. 만일 증대되어야 할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계 내의 만족 수준은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 다름없다해도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한 제 시도는 비교 수준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만일 비교 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게 되면, 어떤 문항의 설명에 대한 일치도나 부부간의 행위 발생 빈도를 평가하는 것이 그 중요성 측면에서 평가 받기 어렵다(Sabatelli & Cecil-Pigo, 1985).

### 3. 比較 水準에 의한 結婚 滿足도와 關係沒入

Sabatelli와 Cecil-Pigo(1985)는 사회 교환적 조망에서, 친밀한 관계로 대표되는 부부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관계 몰입간의 작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는 상호 의존성을 친밀한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교환 패턴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런 입장에서,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 즉각적으로 만족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 부터,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를 유지하는데 까지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가 공평하며, 의존적이고, 보상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결혼 관계내에서 항상 기대되어지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Sabatelli와 Cecil-Pigo는 이러한 관계의 상호 의존성-높은 수준의 만족도, 공평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 몰입과 관련됨을 연구 결과로 확인해 주었다.

Stevensen(1982)등은 관계 몰입이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 하여, 근본적으로 그 연구 방향이 본 연구와는 상반된다. 그들은 관계 몰입을 부부간의 애정에 있어서나,

계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행위를 이끄는 태도로 언급한다. 즉, 관계 몰입이 결혼 및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나 만족도의 증가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 III. 研究方法

### 1. 測定 道具

본 연구에서의 측정은 객관적 변수로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성별, 연령, 자녀수, 수입,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 결혼 형태 등을 다루었고, 주관적으로 결혼 생활을 측정하는 기준인 비교 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를 주관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인 부부의 관계몰입 척도 및 각 변수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夫婦의 關係沒入 尺度

부부의 관계몰입 척도(Family Commitment Scale)로는 남편과 부인이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몰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evensen, Stinnett, DeFrain과 Lee(1982)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는 Kanter(1972)의 이론에 입각하여 3가지 하위 요인(도구적, 도덕적, 애정적 관계몰입)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의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2) 比較 水準에 의한 結婚 滿足度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부부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측정하기 위해서 Sabatelli가 제작한 부부의 결혼에 대한 비교 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 교환론에 입각하여 결혼에 대해 기대했던 수준과, 현재의 관계 내에서 느끼는 수준을 비교 평가한 바를 측정코자 제작된 척도로, 총 문항수는 22문항이며, 채점 방법은 중앙치 반분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본 측정도구에서 나온 점수를 합산하여 그 중앙치인 88점을 기준으로 (점수의 범위는 22점에서 154점까지), 중앙치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 만족 집단으로, 중앙치보다 점

수가 낮은 경우, 불만 집단으로 분류했다. 본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의  $\alpha$ )는 .92으로 나타났다.

## 2. 調查對象 및 資料 募集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녀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상 남녀의 비율을 고르게 유의표집하였고, 사회적 계층도 고려하여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으로 표집지역을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기혼남녀 4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측정도구의 문항을 조정하여 본 조사용 도구를 완성하였다. 총 5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414명의 자료만을 본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배포의 75.2%).

## 3. 分析 方法

자료의 분석은 표준편차, 평균, t검증, 일원분산 분석,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研究 結果 및 論議

## 1. 調查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본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關係 沒入의 全般的 傾向

관계 몰입의 전반적인 경향은 응답 범위가 23점에서 64점(최도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며, 평균은 46.9점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관계몰입 정도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위영역의 경우, 도구적 관계몰입 영역의 응답 범위는 6점에서 15점(최도의 범위는 3점에서 15점)이었으며, 그 평균은 11.4점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관계몰입 영역의 응답 범위는 7점에서 19점(최도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었으며, 그 평균은 13.1점, 애정적 관계몰입 영역의 응답 범위는 10점에서

30점(최도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였으며, 그 평균은 22.4점으로 나타났다.

## 3. 主觀的 變數에 따른 關係沒入

개인이 주관적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인 비교 수준에 의하여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에 관계 몰입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2), 전반적으로 관계에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보다 관계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5.23, P<.001$ ).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여, Stevensen(1982)등의 연구에서도 부부가 그들의 결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와 관계 몰입 간의 상관인  $\rho=.72(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만족 수준이 높은 수준의 관계 몰입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客觀的 變數에 따른 關係沒入

객관적 변수에 따른 관계몰입 정도는 표 3과 같다.

1) 성별로 본 부부간 관계몰입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반적으로 남편의 관계몰입 정도가 부부의 관계 몰입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t=2.01, P.05$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연구와는 대조를 보여, Sabatelli와 Cecil-Pigo(1985)의 연구에서는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관계몰입에 있어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2.12, P<.04$ ). 마찬가지로 Swensen과 Trahaug(1985)의 연구에서도 부인들의 관계몰입정도가 남편들의 관계 몰입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부인의 평균=7.44, 남편의 평균=6.79). 본 연구의 결과가 외국의 제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본 연구 대상 남편들의 연령 급간 중 20대와 30대에 해당되는 대상이 전체의 72.9%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남편들이 가정 외의 활동에서나 가정 내의 생활에서 갖는 자신감이 생활 전반적인 자신감 및 안정감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령별로 분산 분석을 한 결과, 집단별로

표 1. 調査 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특성	성 별 내용구분	남 편		부 인		전 체	
		N	%	N	%	N	%
연 령	30세 이하	58	24.6	59	33.1	117	28.3
	31세-40세	114	48.3	65	36.5	179	43.2
	41세-50세	42	17.8	42	23.6	84	20.3
	51세 이상	22	9.3	12	6.7	34	8.2
자 녀 수	무 자 녀	20	8.5	19	10.4	39	9.4
	한 명	86	36.4	66	37.1	152	36.7
	두 명	93	39.4	60	33.7	153	37.0
	세 명 이상	37	15.7	33	18.5	70	16.9
월 평균 소득	69만원 이하	64	27.1	37	20.8	101	24.4
	70만원-109만원	112	47.5	78	43.7	90	45.9
	110만원-189만원	36	15.3	22	12.4	58	14.0
	190만원 이상	24	10.2	41	23.0	65	15.7
가족 생활 주기	형 성 기	24	10.0	19	10.7	43	10.4
	자녀출산 및 양육기	112	47.5	71	39.9	183	44.2
	자녀 교육 기	68	28.8	48	27.0	116	28.0
	자녀 성년 기	23	9.7	33	18.5	56	13.5
	자녀 결혼 기	9	3.8	7	3.9	16	3.9
결 혼 년 수	5년 이하	105	44.5	65	36.5	170	41.1
	6년-10년	59	25.0	42	23.6	101	24.4
	11년-20년	41	17.4	37	20.8	78	18.8
	20년 이상	28	11.9	32	18.0	60	14.5
	31년 이상	3	1.3	2	1.1	5	1.2
결 혼 태	중 매 혼	45	19.1	41	23.0	86	20.7
	연 애 혼	116	49.2	90	50.6	206	49.8
	정 충 혼	75	31.8	47	26.4	122	29.5
남 편 의 업	무 직(은 퇴)	7	3.0	5	2.8	12	2.8
	비 전 문 직	35	61.9	146	82.0	181	74.8
	전 문 직	66	28.0	27	15.2	93	22.5
부 인 의 업	비 취 업	193	81.8	144	80.9	337	81.4
	취 업	43	18.2	34	19.1	77	18.6
가 족 태	핵 가 족	206	87.3	146	82.0	352	85.0
	확 대 가 족	30	12.7	32	18.0	62	15.0
학 령	중 졸 이하	7	3.0	15	8.4	22	5.3
	고 졸	53	22.5	101	56.7	154	37.2
	대 졸 이상	176	74.6	62	34.6	238	57.5
계		236	57	178	43	414	100.0

표 2. 結婚 滿足度에 따른 關係沒入

변 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도구적 관계몰입	불만	212	11.3	1.79	n.s.
	만족	202	11.5	1.88	
도덕적 관계몰입	불만	212	12.4	2.25	5.18***
	만족	202	13.9	2.70	
애정적 관계몰입	불만	212	21.4	3.40	4.98
	만족	202	23.5	3.73	
전반적 관계몰입	불만	212	45.4	5.11	5.23***
	만족	202	48.6	5.70	

\*\*\*P<.001

표 3. 客觀的 變數에 따른 關係沒入

변 인	집 단	도구적 관계몰입		도덕적 관계몰입		애정적 관계몰입		전반적 관계몰입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성 별	남 편	10.8	n.s.	13.3	n.s.	22.8	2.16*	46.8	2.01*
	부 인	10.7		12.9		21.9		45.5	
연 령	30세 이하	11.3	n.s.	12.4	2.32*	20.8	.84***	44.9	.76***
	31세-40세	11.4		12.9		20.9		45.7	
	40세-50세	11.4		13.5		22.5		47.1	
	51세 이상	11.9		13.2		23.6		48.4	
자 녀 수	무자녀	10.7	2.03*	12.6	n.s.	20.6	9.58***	44.8	4.15***
	한 명	11.5		13.2		22.7		47.2	
	두 명	11.6		13.4		24.8		48.9	
	세명이상	11.3		13.2		22.2		47.0	
수 입	69만 이하	11.1	n.s.	11.8	n.s.	22.2	n.s.	46.1	n.s.
	70만-109만	11.6		13.1		22.5		47.2	
	110만-189만	11.7		13.2		23.2		48.1	
	190만 이상	11.2		13.5		21.5		46.2	
남 편 직 업	무 직	10.5	n.s.	10.0	8.81***	19.0	4.49**	39.5	10.93
	비전문직	11.4		13.1		22.3		46.8	
	전문직	11.8		13.8		23.0		48.7	
부 인 취 업	비취업	10.7	n.s.	13.0	n.s.	22.2	n.s.	46.0	1.79*
	취 업	10.8		13.3		23.4		47.5	
연 애 혼	중매혼	11.5	n.s.	13.3	n.s.	21.8	4.34**	46.6	n.s.
	연애혼	11.2		11.2		22.9		47.4	
	절충혼	11.7		12.9		21.8		46.3	

\*P<.05 \*\*P<.01 \*\*\*P<.001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관계 몰입은 F값이 5.76 (P<.001)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부가 결혼생활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도덕적 관계 몰입 영역에서는 F값이 2.32(P<.05)로 나타났으며, 추후 검증 결과 40대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애정적 관계 몰입 영역에서도 F 값이 8.84(P<.001)로 나타났으며, 추후 검증 결과 50대>40대>40세 이하의 순으로 몰입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경향과 일치해, Stevensen(1982)등의 연구에

서도 연령과 관계 몰입 간의 상관은  $\rho = .18$ 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Kanter의 이론적 틀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결혼에 투자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며, 결혼 이외의 관계에 참여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Stinnett, Montgomery와 Collins(1970)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3) 자녀수에 따라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관계에 몰입하는 정도가 낮았고, 근래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한두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F = 4.15$ ,  $P < .001$ ). 이는 자녀들의 존재가 부부관계를 이어주고, 가족을 유지시켜주는 요인이 된다는 제 연구들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갖기 원하는 것은 관계 연장의 욕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 Stevensen(1982) 등의 연구에서도 자녀 유무와 관계몰입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관계 몰입과의 상관이  $\rho = .20$ 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Sabatelli와 Cecill-Pigo(1985)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존재는 관계몰입과  $r = .17$ ( $P < .03$ )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4) 소득에 따라서 관계몰입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전체 사례를 소득세 기본 세율표를 근거로 하여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득 집단별 분산 분석 결과 관계몰입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향은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이상 189만원 이하인 집단(2, 3집단)이 그 이하나 그 이상의 집단보다 관계몰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Stevensen의 연구(1982)에서는 수입과 관계몰입과의 상관이  $r = 8.11$ ( $P < .05$ )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중간정도 되는 사람들이 높은 관계몰입 정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관계몰입이 그 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달렸다는 Kanter의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가족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성원이 욕구를 충족시켜주

지 못하는 가족내의 성원보다 몰입 정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결과는 성공적인 결혼과 소득간에 정적이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몇몇 연구 결과들(Hicks & Platt, 1970)과 일치한다.

5) 직업에 따른 집단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 영역을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여( $F = 10.93$ ,  $P < .001$ ), 추후 검증한 결과 무직 집단, 비전문직 집단 및 전문직 집단이 각기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직 집단 > 비전문직 집단 > 무직 집단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같은 순서로 관계 몰입 정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관계 몰입 및 애정적 관계 몰입 영역에서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 무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관계 몰입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 따라서 생활 전반적으로 갖는 안정감에 차이가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6)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분석을 한 결과, 비취업 집단과 취업 집단간에 몰입 정도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어( $t = 1.79$ ,  $P < .05$ ), 취업 집단의 몰입 정도가 비취업 집단의 몰입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외에서의 자아실현이 결혼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7) 결혼 형태에 따라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애정적 관계 몰입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애 결혼 집단이 중매 결혼이나 절충혼 집단보다 관계 몰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F = 4.43$ ,  $P < .01$ ). 이는 애정적 관계 몰입이 관계내의 사람들간의 강력한 감정적 유대로 설명될 때, 연애 결혼 집단이 중매 결혼이나 절충혼 집단에 비해 몰입 정도가 높게 나온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 5. 關係沒入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관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몰입을 종속 변수로 하고, 비교 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와 인구통계

표 4. 關係沒入에 대한 回歸 分析表

step	變 數	beta	F	R Square
1	결혼만족도	.43	63.73***	0.18
2	남편의 직업	.21	41.26***	0.22
3	자녀 수	.17	32.15***	0.25

학적 변수(성별, 연령, 자녀수, 직업)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을 설정한 후, stepwise regression을 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부부의 관계 몰입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는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만족도(18%)로서, 비교수준에 의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가 결혼 생활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남편의 직업으로서, 전문직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관계몰입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세번째로 설명력있는 변수는 자녀수로, 자녀수가 두명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몰입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서 부부의 관계 몰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이고, 그 다음으로 남편의 직업, 자녀수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들 독립 변수들에 따라 관계 몰입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앞의 분석 예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부부가 결혼 생활에 몰입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 일반화된 자기 중심적인 현 세대가 결혼 생활에 까지 깊숙히 파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반기에 비해 결혼 초반기에 관계 몰입 정도가 현격히 낮게 나왔음을 고려해 볼 때, 결혼 초반기에는 혼전의 자아 몰입 상태가 결혼 생활에의 몰입 상태로 변화되지 않은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혼 생활에의 몰입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히 그 정도가 높아지겠지

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제반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한 결혼 생활의 갈등과 문제를 예기할 때,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사전 준비를 제공하는 결혼 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 결혼 생활에 대한 관계 몰입은 부인의 취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취업 부인의 관계 몰입 정도가 비취업 부인의 관계 몰입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집단간에 큰 차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높은 교육을 통한 전문직에의 취업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가 다른 집단들과의 뚜렷한 관계 몰입 정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 남성과 동일한 교육 수준을 갖춘 경우, 동일한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제가 갖춰져야 하며, 가정외에서 취업함으로써 부인이 갖게 되는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 내부에서의 협조와 아동 탁아 시설 등의 사회 복지 기구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3) 부부의 결혼 생활에의 관계 몰입 정도를 예측해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교 수준에 따른 결혼 만족도, 남편의 직업, 자녀수 등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결혼 만족도 변수의 영향력이 기타의 객관적 변수들보다 영향력이 컸음을 볼 때, 부부의 관계 몰입 정도는 부부 각자의 주관적, 심리적 판단에 크게 의거함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로만 한정시켰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부부 전체에게로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으며, 표집 단위가 한쌍의 부부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어서, 쌍(pair)으로 비교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와같은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한 가정의 기본 단위인 부부를 단위화해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2) 조사 도구상의 문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 몰입 측정도구와 주관적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 만족도 측정도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척도로, 문항의 신뢰도 검사를 통해 사용하였지만,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척도들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문항이 많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척도를 개발,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 비교 수준을 설정하고 현 관계가 비교 수준 이하일 경우,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해석을 했으나, 결혼 생활이 비교 수준 이하라고 해서 결혼 생활 전반에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일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4)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전반적으로 관계 몰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 가족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상 가족과 문제 가족을 비교 연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족 치료(Family Therapy) 영역에서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도 그 가치가 크다 하겠다.

(5) 본 연구는 결혼 만족도라는 심리, 주관적인 변수가 관계 몰입이라는 태도 내지 행동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 가정하에 실시되었으나, 역으로, 부부 각자가 이미 확립하고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 2) 유영주·이순형·홍숙자(1990). 가족발달학, 교문사.
- 3) 전병재(1978). 사회 심리학 : 관점과 이론, 경문사.
- 4) Abramson, E., Cutler, H.A., Kautz, A.W. & Mendelson, M.(1985). "Social Power and Commitment : A Theoretical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
- 5) Becker, H.S.(1960). "Notes on the Concept of Commit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6.
- 6) Berscheid, E. & Walster, E.H.(1969). *Interpersonal Attraction*.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 7) Bowman, H.A.(1974). *Marriage for Moderns*. New York : McGraw-Hill.
- 8) Cox, F.D.(1978). *Human Intimacy :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St. Paul : West Publishing.
- 9) Dean, D.G. & Spanier, G.B.(1974). Commitment-an overlooked variable in marital adjustment. *Sociological Focus* 7.
- 10) Derlega, V.J.(1984).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Academic Press Inc.
- 11) Gouldner, Helen. P.(1960),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
- 12) Helson, H.(1964). *Adaptation level Theory*, New York : Harper & Ros.
- 13) Henslin, J.M.(1989).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14) Hicks, M.W. & Platt, M.(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 research in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15) Hinde, R.A.(1981). The bases of a sci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Duck & R.Gilm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1, New York : Academic Press.
- 16) Huston, T.L. & Cate, R.M.(1979). *Social Exchange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Cook, M. & Wilson, G.(eds.), *Love and Attraction*, New York : Pergamon Press
- 17) Johnson, M.P.(1978). *Commitment : A Conceptual Structure and Empirical Application*. *Sociological Quarterly*, 14.
- 18) Kanter, R.M.(1968). "Commitment and Social Or-

- ganization : A Study of Commitment Mechanisms in Utopian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 19) \_\_\_\_\_ (1972). *Commitment and Communit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20) Kelley, H., et al.(1983).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Freeman.
- 21) Kelley, H. & Thibaut, J.(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 Wiley.
- 22) Kelley, H. & Thibaut, J.(1978). *Interpersonal Relations :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 Wiley.
- 23) Levinger, G. & Raush, H.L.(1977). *Close Relationships :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intimacy*, Amherst, MA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24) Lewis, R.A., Spanier, G.B., Atkinson, V.L. & Lettack, C.F.(1977). "Commitment in married and unmarried cohabitation", *Social Focus* 10.
- 25) Lively, E.(1969).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 case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 26) Masters, W.H. & Johnson, V.E.(1974). *The Pleasure Bond : a new look at sexuality and commitment*, Boston : Little Brown.
- 27) Nye, F.I.(1982). *Family Relationships : Rewards and Costs*, Beverly Hills, CA : Sage.
- 28) Sabatelli, R.M.(1984).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29) Sabatelli, R.M. & Cecil-Pigo, E.F.(1985). "Relational interdependence and commitmen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30) Schulz, D.A. & Rodgers, S.F.(1975). *Marriage, the family, and personal fulfill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31) Stevensen, P., Stinnett, N., DeFrain, J. & Lee, P.A. (1982). Family commitment and marital need satisfaction. *Family perspective*. 16.
- 32) Stinnett, N. & Everlyn.(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 33) Stinnett, N., Collins, J. & Montgomery, J.E.(1970). "Marital need satisfaction of older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 34) Stinnett, N. & Walters, J.(1977).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Macmillan.
- 35) Swensen, C.H. & Trahaug, G.(1985). "Commitment and the long-term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36) Yankelovich, D.(1981). *New Rules : Searching for self fulfillment in a world, Turned upside down*, New York : Random House.